

기타 타이어 시장 시장 동향

캐나다, 타이어 수입 급증세

2000년대 들어 캐나다의 타이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트럭·버스용 타이어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타이어 수입은 00년 이후 04년까지 연평균 5.1% 증가한데 이어, 05년 1~7월중에는 전년동기비 15.8% 증가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캐나다의 타이어 수입호조는 캐나다 내수경기가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자동차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캐나다 전체 타이어 수입의 57.3% (04년 기준)를 차지하는 승용차용 타이어의 수입이 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별로는 최대 수입상대국인 미국(04년 기준 66.4%의 점유율)으로부터의 수입이 주춤하는 가운데, 승용차용 고급 타이어에 주력한 일본과 저가 중국산의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입은 00~04년중 연평균 9.7% 증가하여 여타국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05

년 1~7월중에는 전년동기비 10.5% 증가하는데 그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산의 경우 승용차용(04년 기준 57.0%)과 트럭·버스용 (42.7%)의 수입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금년 들어 특히 트럭·버스용 수입이 중국산 저가품과의 경쟁에서 급격히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 캐나다의 국별 타이어 수입동향 〉

(단위 : 천달러, %)

	00	04	05. 1~7월		점유율		
			금액	증가율	00	04	05.1~7월
총수입	1,401,760	1,713,016	1,106,289	15.8	100	100	100
미국	1,027,487	1,137,218	659,314	2.4	73.3	66.4	59.6
일본	124,701	169,465	133,773	39.3	8.9	9.9	12.1
중국	19,240	58,899	69,923	130.9	1.4	3.4	6.3
한국	57,645	83,487	53,078	10.5	4.1	4.9	4.8

주 : HS Code 4011 기준, 자료원 : 캐나다 산업부, Trade Data Online

대캐나다 타이어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캐나다내 유력 타이어 딜러들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텔레비전 등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KOTRA 밴쿠버무역관, 05.9.27〉

헝가리 타이어 시장 확대일로

V4 국가(Visegrad 4개국: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부 유럽이 EU 자동차시장 침투를 목표로 하는 굴지의 다국적 자동차업체의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헝가리 타이어 시장은 세계 1위의 미쉐린을 비롯하여 브리지스톤, 한국타이어 등 타이어 생산업체가 속속 진출하고 있어 시장이 급속히 팽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계 타이어 제조업체들은 서유럽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인건비, 비교적 풍부한 숙련된 노동력, 인근 완성차 제조업체로 공급 시 물류비용 절감, EU 진출의 용이성 등으로 중동부 유럽에 대거 진출하고 있는데, 향후 15년 이후에도 중동부 유럽의 인건비가 서유럽 인건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자동차산업 관련 산업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쉐린은 헝가리 동북부 Nyregyhaza 소재 공장에서 연간 80만개의 승용차용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 제2공장을 완공하여 생산량을 2배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브리지스톤은 현재 공장을 건설 중인데 06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간 20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할 계획이다.

굿이어사도 독일과 스위스 시장에서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타이어 판매 및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렌차이즈점 Premio를 지난 11월초 헝가리 내에 최초로 개설하였으며, 향후 2,3년 내에 프렌차이즈점을 2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타이어도 수도 부다페스트 남쪽 68km 지점에 위치한 두아우이바로쉬에 타이어 생산 공장 건설을 발표하여 빠르면 07년부터 연간 1,00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할 계획으로 외국계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타이어 생산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V4 내 다국적 자동차 생산업체로는 폴란드에 FIAT, GM(Opel), FSO(전 대우-FSO), 체코에 TPCA, Skoda, 헝가리에 스키, 슬로바키아에 기아(건설 중), 체코에 현대자동차(투자계획 발표) 등이 있으며, 독일 트럭 메이커인 슈미츠 카고볼(Schmitz Cargobull)사도 최근 헝가리 비취께(Bicske)에 4만sm 규모의 조립공장을 건설, 07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할 계획으로 이래저래 타이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헝가리 타이어 시장은 연간 220만개 정도로 추산되고 90%가 승용차용 타이어이며,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계절적 특징으로 스노우 타이어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에 의하면, 겨울에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는 운전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노우 타이어 사용자가 매년 10%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비자들은 타이어 구입시 브랜드와 가격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04년 헝가리의 타이어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2억 1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05년 8월까지의 수입실적이 벌써 04년도 실적에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스페인, 독일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해 연말까지 전년 대비 약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소재 완성차 제조업체로의 수출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04년 전년 대비 약 27%가 증가한 2억3,6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특히 슬로바키아 시장으로의 05년 8월까지의 수출은 04년 200만달러 규모에서 2,900만달러 규모로 큰 폭으로 성장하여 타이어가 헝가리의 수출주종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05.11.16)

인도네시아 타이어 시장 동향

인도네시아의 올해 타이어 생산량은 3,890만개로, 지난해 대비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타이어협회(APBI)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타이어 생산량은 연평균 14.6%씩 증가해 왔으며, 01년 연간 생산량 2,280만개에서, 지난해에는 3,530만개를 생산한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2,730만개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어 업체들은 국내수요가 둔화되면서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은 올해 8월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20.8% 증가한 3억 6,4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는 5억달러 이상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억 4,500만달러로 03년대비 22.9% 증가한바 있다.

타이어협회(APBI)는 국제 타이어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인도네시아 업체들은 국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네시아 타이어의 품질은 다른 개도국 대비 경쟁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수출 증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 등 전 세계로 수출 중에 있다.

〈 인도네시아 자동차용 타이어 생산동향 〉

연도	생산량(백만개)	증가율(%)
01	22.8	-
02	27.2	19.3
03	30.6	12.5
04	35.3	15.4
05	38.9	10.2

주 : 05년은 APBI 추정치 / 자료원 : APBI, Ministry of Industry

인도네시아는 산업부장관 및 무역부장관 법령으로 타이어의 품질이 국가표준산업기준(SNI)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06년 3월 23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당초 올

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년간 시행이 연기되었다. 기준은 주로 열대의 기후에 적합한 고무의 내구성 및 허용 속도 등으로 돼 있으며, 수입 타이어에도 적용토록 돼 있다.

이런 기준의 설정은 단기적으로 타이어시장의 성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산업협회(Gaikindo)도, 품질기준설정엔 수입업체에게 타이어테스트를 위한 또 다른 비용부담을 안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조치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산 저가 저품질 타이어의 공략에 노출돼 있는 인도네시아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타이어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인도네시아의 최대 타이어생산업체인 PT Gajah Tunggal 은 래디얼 타이어 및 오토바이용 타이어 부문에 대해 각각 1억달러 및 7,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투자가 완료되는 08년에는 일일 생산량이 현재보다 50% 증가한 4만 5,000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타이어수출은 올해 들어 167.6% 증가(9월 누계기준)하면서 지난해의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인니로부터의 수입도 47.1% 증가하는 등 양국간의 타이어 교역규모가 커지는 추세에 있다.

〈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타이어수출입 동향 〉

구분	04		05. 1~9월	
	금액(천달러)	증가율(%)	금액(천달러)	증가율(%)
수출	3,962	69.2	6,404	167.6
수입	4,469	3.4	4,350	47.1

주 : MTI 3203 기준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05.11.4〉

우리나라 타이어, 뉴질랜드 시장점유율 2위 탈환

우리나라 타이어의 대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뉴질랜드 시장에서 일본에 이어 다시 2위 자리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경기호조를 얻고 자동차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우호적인 여건이 바탕이 되고 있지만 호주 및 대만제품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노력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금년 1~9월 뉴질랜드의 승용차 타이어 수입 증가율은 18.74%로 매우 양호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과 중국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금호, 한국 및 넥센 타이어 등 우리나라 타이어의 대뉴 수출은 저가 제품을 앞세운 마케팅을 지양하고 초창기부터 품질위주의 진출 노력과 현지 에이전트의 마케팅, 이미지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주력 제품으로서의 위치를 굳혀 왔다.

< 승용차용 타이어(HS401110) 수입동향 > (단위:백만달러, %, CIF기준)

순위	국가명	수입실적			시장점유율			증감률
		03	04	05 (1~9월)	03	04	05 (1~9월)	
0	총계	48.31	59.40	49.78	100.00	100.00	100.00	18.7
1	일본	12.10	15.42	14.32	25.05	25.97	28.76	30.2
2	한국	7.38	6.98	6.58	15.27	11.76	13.21	33.2
3	중국	5.55	7.22	6.22	11.50	12.15	12.49	24.7
4	호주	5.45	8.28	5.73	11.29	13.95	11.51	-2.6
5	대만	3.91	4.86	3.30	8.09	8.18	6.62	-5.9
6	독일	2.63	2.61	2.70	5.45	4.39	5.43	53.1
7	인니	3.18	3.55	2.68	6.59	5.98	5.38	6.3
8	태국	0.84	1.94	1.91	1.74	3.27	3.85	58.0
9	이태리	0.46	1.16	1.56	0.96	1.95	3.13	116.6
10	미국	1.02	1.40	0.94	2.11	2.35	1.89	9.5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경쟁을 하는 가운데 브리지스톤과 피어스톤 및 던롭은 현지에 공장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명 브랜드의 현지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로 수입 관세가 무려 17.5%가 부과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소비패턴은 안전성을 중시하는 운전자가 압도적이어서 중고 타이어보다는 새 타이어를 선호하고 있으나 수요층의 상당부분은 저가에 몰려 있고 진출 브랜드도 많은데다 높은 관세를 통해 수입제품에 대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어 공략이 호락하지는 않은 여건이다. 현지의 한국제품 에이전트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미셸린, 피어스톤, 브리지스톤 등 세계적 브랜드에 비해 우리나라 제품은 가격면에서 10% 정도 낮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협소하고 세계 굴지의 브랜드가 대부분 진출해 치열한 저가 경쟁을 펴고 있어 이에 맞서려면 가격지향의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의 수출업체 및 현지 에이전트 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진출기반이 확보되어 있고 에이전트의 활발한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수출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오클랜드무역관, 05.11.24>

뉴질랜드 시장에서는 세계굴지의 브랜드 제품이 치열한